

2016년 7월

화학경제연구원  
컨설팅사업부  
02-6124-6660

발간일: 2016년7월  
분량: 62페이지  
가격: 88만원

## 기능성 TAPE, 2차전지/의료용 주도로 급성장 기대

Technavio에 의하면 2015년 글로벌 산업용 Tape 시장 규모는 470억달러였으며 향후 5년간 6.0% 대의 성장률을 기록해 2020년에는 63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국내 기능성 Tape 시장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13.8%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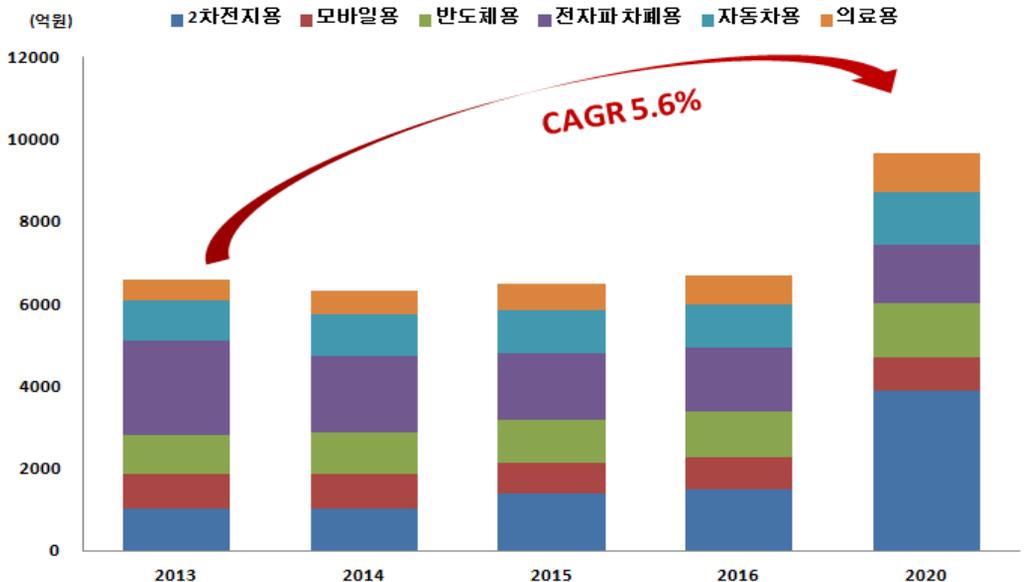
본 보고서의 조사 범위는 2차전지용, 모바일용, 반도체용, 전자파 차폐용, 자동차용, 의료용 Tape 중에서도 고기능성 아이템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전체 기능성 Tape 시장 규모는 본 보고서에 기재된 수량보다 훨씬 클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기능성 Tape 시장(의료용 제외)은 수량기준 2015년 약 3100만m<sup>2</sup>를 기록했으며, 앞으로도 전기차와 2차전지용에서 수요를 견인해 2020년에는 약 6000만m<sup>2</sup>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금액기준으로 국내 기능성 Tape 시장(의료용 포함)은 2013년부터 7년간 평균 5.6%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2020년에는 약 9700억원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2차전지용 Tape 수요가 2020년까지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모바일용과 전자파 차폐용 Tape 수요는 IT기기 시장 침체와 공정 및 설계 효율화로 성장 둔화가 예상된다. 그 외 반도체용과 자동차용도 전방산업의 성장 둔화로 평균 성장률이 4~5%대에 머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금액 기준 국내 기능성 Tape 시장 (2013-2020)



Source) CMRI

## 2차전지용 Tape, 전기자동차 시장 개화에 힘입어 급성장 기대!

2차전지 시장은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PC 등 IT기기를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됐고 전기차용 중대형 배터리 수요는 이제 막 성장기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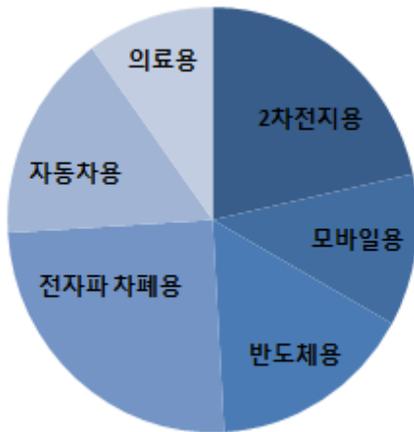
글로벌 전망데이터에 따르면 2015년 글로벌 2차전지 생산량은 71.3GW로 IT용 소형 2차전지가 75%, 전기차용 중대형 2차전지가 22%, ESS가 약 3%를 차지했고 현재까지는 IT용 수요가 대부분이었다.

국내에서도 삼성SDI가 2015년 한해 14.3GW(소형 13.5GW, 중대형 0.8GW), LG화학이 10.4GW(소형 9.1GW, 중대형 1.3GW), SK이노베이션이 생산한 중대형 0.9GW를 더하면 소형전지 생산 비중이 88%를 차지하고 있다.

2차전지용 Tape 시장에서는 'Tapex', '대현에스티', '세일하이텍'이 경쟁하고 있다. 그 중 'Tapex'와 '대현에스티'가 가장 먼저 시장에 진입해 현재까지도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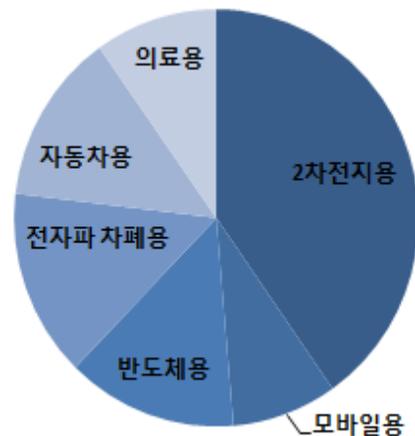
글로벌 전망데이터에 의하면 2020년 2차전지 생산량은 2015년과 비교해 3배로 확대돼 약 200GW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한국기업의 점유율(약 36%)이 유지된다면 2차전지용 Tape 수요량도 동반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금액 기준 국내 기능성 Tape 시장 (2015)



Source) CMRI

금액 기준 국내 기능성 Tape 시장 (2020)



Source) CMRI

기능성 Tape 시장 분석(2016) 보고서에서는 용도별 기능성 Tape의 국내 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5년간 국내 수요 및 성장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2차전지용 Tape, 모바일용 Tape, 반도체용 Tape, 전자파 차폐용 Tape, 자동차용 Tape, 의료용 Tape의 시장분석 및 전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상세내용은 CMRI 시장분석 보고서-기능성 Tape 시장 분석(2016)보고서 참조